

제 2회 금융의 날
기념식

祝 辭

2017. 10. 31(화) 10:30
63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홀

금융위원장 최 종 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직장상사·동료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의 날’을 맞이하여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당국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금융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금융 본연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II. 금융의 역사

금융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와 달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은행 >

은행은 아이러니하게
최근 은행권 부실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14세기 유대인들이 벤치(bench)에 앉아
대부업을 하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¹⁾

은행이 등장하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더 이상
돈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도
채무자의 신용도를 일일이 따져보는 수고 없이
은행에 자금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험 >

보험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상호부조 방식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1) 중세 교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죄악시하였기에, 유대인들이 이 업무를 담당,
벤치(Bench)와 은행(Bank)은 어원이 같음

14세기 유럽에서
무역 상인들이 오랜 항해에 따른 위험을
공동 부담하던 것에서 시작하여,

17세기 영국에서 무역 상인들이
오늘날 거대 보험사로 발전한 로이드(Lloyd's) 카페에 모여
날씨, 파도, 해적 등 주요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객관적 정보에 기반을 둔 현대보험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 증권 >

증권쪽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시대의 발전을 앞당긴 주식회사 제도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정된 책임만을 지면서
위험이 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회사도 투자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는 주식매매를 위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고,

항해의 성공여부나 배당 정책 등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주식거래를 도와주던 유테인 트레이더²⁾들이
오늘날 증권회사로 발전되었습니다.

2) 당시 유럽의 무역중심지마다 존재했던 유테인 네트워크는 유테인 트레이더들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도와주었음

III. 금융의 양면성

< 순기능 >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금융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융의 영어표현인 Finance가
목표(Goal)를 뜻하는 라틴어 finis [피니스]에서 유래한 것도
이러한 역사가 반영된 것입니다.

금융이 우리 생활에 개입되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정보가
생산·유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입자의 신용도와 각종 위험이
객관적으로 측정되고
기업들도 자신의 재무상태와 사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덕분에
우리 경제는 보다 생산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 역기능 >

금융이 우리 생활에 도움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의 생산성이나 사회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① 쏠림현상

금융은 이익을 좇아 빠르게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글로벌화에 따라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이익을 얻으려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리고,
상황이 나빠지면 손실을 피하려고
먼저 빠져 나가려는 경쟁이 발생합니다.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금융기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자금이 집중됩니다.

이러한 금융의 쏠림현상은
버블의 형성과 붕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손실은
금융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국가들이 공적자금 투입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성과는 금융기관이 혼자 가지지만
책임은 전 국민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② 양극화 확대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통해
위기를 극복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은 사회의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욱 부유하게,
없는 사람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과거 금융거래 기록이 좋을수록
더 낮은 이자로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으나,
정작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사리 돈을 빌리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이자를 내야하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다음번에 돈을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형편이 좋아 거래실적이 우수한 우량고객들은
ATM, 우대금리, 신용카드 등 각종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지만,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은 오롯이 다 지불해야 합니다.

금융의 기초는 신용이기에
신용에 의존하는 거래를 타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사람일수록 도와야 한다는
일반적인 정서와 반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③ 신뢰 훼손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을 중요시 한다면
고객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중요시 합니다.

가구나 냉장고 같은 일반 제품은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따지는 반면,
금융상품은 어느 금융기관이 만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고객들은 믿을만한 금융기관의 상품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은 너무나 복잡하기에
신뢰의 훼손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금융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금융기관이
고의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금융산업이 고도화되고 금융기법이 발전할수록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 번 잃은 신뢰는 더욱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IV. 변화의 노력

< 기본방향 >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의 본성에 내재된 사회적 역기능들은
시공을 떠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 영화 등에서는 종종
‘금융’을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색한 모습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에 대한 인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금융업 종사자들이 특별한 악한들이 아닌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것에 서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을 억제하고 축소시켜야할까요?

날카로운 칼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칼이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금융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면서
순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감독당국 역할 >

우선,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BIS, FSB와 같은 금융관련 국제기구들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의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유동성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20은 지난 8월
금융소외계층의 제도권 금융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³⁾

우리도
시중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이 우리 금융의 한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17.8.8일 G20의 금융포용성 포럼인 GPFI(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는 취약계층 관심 확대,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보호 등을 내용으로 「2017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발표

< 금융기관 역할 >

다행인 것은, 금융기관 스스로도
과거의 낡은 인식과 행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을 적극 취급하고,
상환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소각하는 등
서민층 금융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핀테크, 클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혁신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인 JP모건은
자동차 산업의 쇠락으로 파산까지 이른 디트로이트시와
협력 프로젝트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기부가 아닌
금융원리를 함께 적용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 JP모건은 '13년부터 1.5억달러 규모의 'Invested in Detroit' 프로젝트를 통해 디트로이트시의 일자리 창출, 소기업 활성화, 주민 직업훈련 확대 등을 위한 자금지원 수행중. 그 성격은 단순 기부가 아니며 55% 정도는 대출 형태로 활용

금융이 자신의 본성을
자신의 역기능을 치유하는데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낯선 시도가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우리 금융기관에도 확산되길 바랍니다.

최근 금융권의 수익이 증가하여
건전성이 높아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회사를
왜 ‘기관’이라는 단어를 붙여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금융이 우리 사회에서 담당해야할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금융의 변화를 선도할 주역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응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